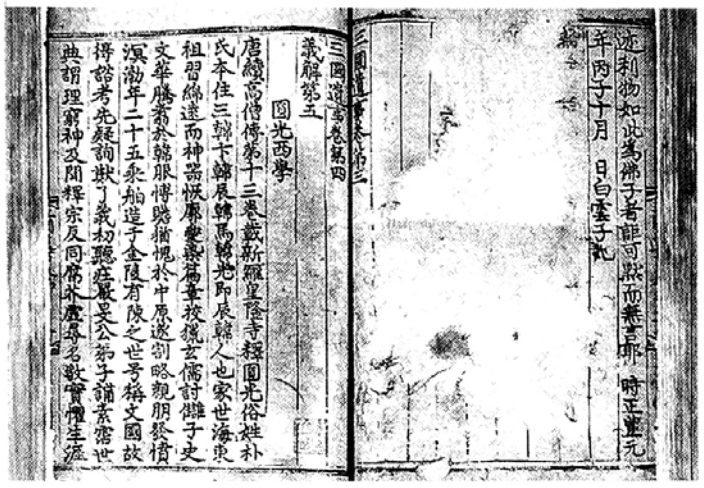
"삼국유사 조선초 첫 판각"

<태조 3년>

천혜봉 前 성대교수 일연학술대회서 주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삼국유사' 판본들인 조선초기 판본들이 최초의 '삼국유사' 판각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가장 오래 된 조선 초기 판본 중 하나인 '삼국유사 권3~5'(보물 419호).

최근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문헌자료인 〈삼국유사〉의 판본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돼 지정 예고된 가운데, 〈삼국유사〉의 찬술과 판각 시기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재조명해 보는 학술 대회가 열렸다.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와 일연학연구원(이사장 법타)은 14일 '〈삼국유사〉의 찬술과 판각'이란 주제로 제2회 일연보각국사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주제 발표를 맡았던 천혜봉(사진) 전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조선 초기에 판각한 〈삼국유사 권 3~5〉(보물 419호, 개인 소장)와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범어사 소장본은 판각용 필서본을 마련해 최초로 개판한 초각판의 성격과 특징이 뚜렷하다"며 "〈삼국유사〉가 최초로 판각된 시기는 조선 초기이며 조선 태조 3년(1392)"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삼국유사〉의 최초 판각 시기에 대해서는 육당 최남선이 일연 생존시 판각설을 주장한 이래 일연의 제자 무극 생존시 판각설 등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어느 주장이나 현존하는 최고(最古) 판본인 조선 초기 판본은 고려시대 초각본을 바탕으로 중각(重刻)한 것이거나 3각(三刻)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최초 판각 시기를 고려시대로 잡고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 판본인 이들 세 판본에 판각된 글자체와 새긴 기법을 고려 이래의 전통적 판각기법에 기초해 살펴본 천 교수는 이들 판본이 고려시대 판각본을 다시 번각한 것이 아니라 새로 최초로 간행한 초각판임을 밝혀냈다.

번각판이라면 조선 중종때 판각된 정덕본처럼 글자획이 굵었다 가늘었다 가지런하지 못하고, 글자획을 잘못 새겨 끊기거나 부분적으로 잃은 것이 나타나거나 글자체가 일그러진 것이 자주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조선 초기 판각본은 글자 모양이 바르고 새김이 정교해 글자획이 가지런하고, 마치 필사한 것처럼 필력이 예리하여 초각 판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선 초기 판본이 중각본이라면 3번째 판각본에 해당하는 중종 때 판본에는 고려시대 초각본과 중각본, 3각본의 특징이 함께 섞여 있어야 하는데, 조선 초기 판본과 중종 때 판본의 특징만 나타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천 교수는 "현존하는 〈삼국유사〉 조선 초기 판본은, 고려 후기까지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던 것을 〈삼국사기〉를 다시 판각한 조선 태조 3년(1394년) 4월을 전후한 무렵 경주부에서 판각한 초각판이며 그것이 중종 때 판본의 바탕이 된 원각판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조선 초기 이후에 인용된 예에 비해 고려 후기 전적에 〈삼국유사〉가 인용된 예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도 조선 초기 판각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서도 "각주에 보이는 '고본(古本)' '일본(一本)' '별본(別本)' 등의 용어를 필사본으로 해석하느냐 판본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최초 판각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주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말까진 '삼국유사' 인용 희소

"각주의 '古本' 의미 정밀 해석 필요"

김상현 교수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특별기고

김 재 일

두레생태기행 대표

한국생태학회는 국제생태학회와 공동으로 12일부터 8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서울 세계생태학대회'를 열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생태학(Ecology in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환경과학자와 행정가, 시민운동가 등 50개국 2천여 명의 생태환경 전문가들이 참여, '지구환경 변화와 환경정보 및 기술' '생태계의 복원' '경관생태' '생태도시계획' 등 23개 분야, 70여 개의 심포지엄을 통해 1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시민공개 강연회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계에서는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가 16일 '한국 풍속에 깃든 생태적인 삶'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했다.

■한국인의 생명공동체 인식

한국인은, 지구의 주인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며 인간도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존재로 인식했다.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약간의 음식을 마당이나 집밖에 내놓는 것이나, 대보름날에 밥을 강이나 바다에 던져 넣는 '어부슴(漁夫心)' 같은 풍속은 공생관의 발로였다. 들에 나가 식사할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조금 떼어서 '고수레!'를 외치며 멀리 던지는 것은 모든 공덕을 자연생명들에게 돌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겨울에 나무할 때 '나뭇짐을 지고 개울을 건너지 말라'고 한 것은 개울 건너 다른 마을의 산에서 땔감을 해오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생명(숲) 공동체를 위한 약속들이다.

■한국인의 생명관

한국인은 살생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산소에 벌초하는 일을 '풀 내린다'고 했다. 풀도 생명이므로, 살생적인 느낌을 주는 '벤다'는 말 대신 '내린다'는 말을 생각해 냈다. 한국인은 해충이라도 잡아죽이는 것보다는 멀리 내쫓는 일에 더 익숙했다. 모깃불을 피워서 모기를 밖으로 쫓아내고, '속거천리(速去千里)'라는 글씨를 써 붙여서 노래기를 쫓아내고, 장독에 흰 창호지로 버선본 만들어 붙여 창호지의 반사광을 이용해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생은 한국불교에만 남아있는 불교 풍속으로, 죽음의 위기에 닥친 생명을 살려주는 실천덕목이다.

■한국인의 생명세대주의

한국인은 생물의 멸종을 가장 두려워 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종자를 말리는 법이 없었다. '봄에 민들레꽃을 꺾으면 어머니 젖이 준다'는 속담은 1년에 한번 밖에 피지 않는 민들레 꽃(씨앗)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감나무에 '까치 밥'을 남겨두는 것은 감나무 종자를 소중히 남겨두려는 뜻이 깃들어 있다. 감을 죄다 따버리면 감나무가 노여워해서 다음 해에는 감을 많이 매달지 않는다는 속설도 감나무의 생명세대주의를 말해준다.

■한국인의 자연관과 풍수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풍수를 배우고,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풍수에 대해 체험적인 안목이나 정보를 주고받았다. 풍수적으로 허한 곳에 숲을 조성하거나 가산(인공산)을 만들었다. 습기를 좋아하는 물봉숭아 피어있는 곳에는 집터나 묘터를 잡지 않았다. 또 산을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오른다(登山)' 하지 않고 '든다(入山)'라고 했다.

■한국인의 물에 대한 인식

한국인은 물을 생명의 정령(精靈)이며, 하늘에 바치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순수한 정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수질 보전과 물 아끼기에 관한 풍속이 많다. '흐르는 물에 오줌을 누면 아이를 못 낳는다' '우물가에서 밥알을 떠내려보내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등의 속담도 수질오염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세시풍속 계승발전 중요

자연교육이나 환경운동은 결국 파괴된 자연을 과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생태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옛 사람들의 자연과 환경 존중의 정서가 깃들여진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곧 자연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인들 살생 부정적 … 해충 죽이기보다 쫓아

수질오염행위 경계 · 물 절약 속담들 많이 간직

'법화삼매' 현대인에 알맞는 수행법

이기운 강사 책 출간

"'법화삼매'는 현대인에게 알맞은 수행법이다. 참선뿐 아니라 독송과 참회 등 여러 가지 수행법이 통합적으로 들어 있어 자신의 근기에 맞춰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기운(동국대 강사 · 사진) 씨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새로 고쳐 〈법화삼매의 전승과 수행〉(성불사)이란 책으로 엮었다.

'법화삼매'는 〈법화경〉에 기초를 둔 천태종의 근본 수행법으로, 중국의 남악혜사가 처음 깨친 이래 천태지의, 백제의 현광(생몰년 미상) 등이 법화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나라에는 혜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백제의 현광이 귀국함으로써 전해졌는데, 조선초기까지도 계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혜사의 〈법화경 안락행의〉와 천태의 〈법화삼매참의〉에 수행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책은 법화삼매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혜사, 지의, 혜광이 펼친 법화삼매를 살펴본다. 천태의 〈법화삼매참의〉를 번역해 부록으로 실어놓았다. "고려후기 백련 결사에서 정식 수행법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시되던 수행법인 '법화삼매'를 되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이 씨는 "법화삼매는 3 · 7일 동안 주야 육시로 나눠 수행하게 되어 현대인들이 수행하기에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값 2만원.

21일간 주야 6시로 나눠

독송 등 근기에 맞게 수행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3건

문화재 지정번호 · 이름 통일

문화재청은 최근 전남 장흥 보림사에 소장돼 있는 '보물 1251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 제1)〉'(사진)의 지정번호와 이름을 '보물 722-3호 〈금강경삼가해-권1〉'로 바꿨다. 또 이 경전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지정번호와 이름이 달랐던 3건의 지정번호와 이름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보물 772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1,5)〉, 보물 773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2~5)〉, 보물 772-4호 〈금강경삼가해〉는 각각 보물 772-1호 〈금강경삼가해-권1,5〉, 보물 772-2호 〈금강경삼가해-권2~5〉, 보물 772-4호 〈금강경삼가해-권2〉로 변경됐다.

'天台수행론'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 동국대서

보조사상연구원은 24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천태의 수행론'을 주제로 제47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천태불교가 중국과 한국의 불교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비해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종두(동국대 강사)씨가 '천태의 사종삼매에 관한 고찰'을, 오지연(동국대 강사)씨가 '천태의 수행론에서 부정지관의 위상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정희(이화여대 강사)씨와 최동순(동국대 강사)씨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02)733-5315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여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제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효도선물 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은別) : 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매품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상담(02) 5454-010
농협 : 063-02-124288
국민 :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2학년도 가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 양 불 교	불교란 무엇인가?	Ⅰ	차 차 석	1학기	주 간
		Ⅱ	권 기 종	1학기	주 간
	참 선 수 행	Ⅰ(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Ⅱ(참선공안의 참구와 실참)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불 교 연 구	경 전 연 구	원각경	권 기 종	2학기	주 간
	불 교 한 문	육조단경	심 재 동	2학기	주 간
	한 문 해 석 법	격몽요결	심 재 동	2학기	주 간
	논 어 강 독		이 종 찬	2학기	주 간
불 교 전 문	불교전문교육	반야사상	박 인 성	5학기	주 간
		기신론사상	권 탄 준		
		천태사상	지 창 규		
		불교교리발달사	최 홍 수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 명 대	2학기	주 간
문 화 · 예 술	불교전통꽃꽂이		정 진 희	2학기	주 간
	전통사경(寫經)		김 경 호	2학기	주 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 기간 2002년 8월 1일(목) ~ 8월 30일(금)
■ 접수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및 사진 2매
■ 불교전문교육과정 주민등록등본과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 02) 2260-3728~9 / FAX :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edu/~soedu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뿌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